

지역 소식통

고창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 착수

고창군이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수 용수관로와 배수로설치에 도로까지 정비해 양질의 원예작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무장면 옥산리 일원 20.8ha에 추진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이 세부설계에 착수했다. 앞서 고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연초 입찰을 통해 설계업체가 선정됐다. 군과 농어촌공사는 추진위원회와의 착수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총 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부지정비, 도로확장, 용배수로 정비,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설치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모범 노인·노인복지
기여단체선정, 표창장 전달

정읍시가 지역발전과 화합에 앞장서 온 어르신들과 노인복지 기여 단체 등에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읍면동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모범 노인과 장한 어버이를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모범 노인은 풍부한 경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공헌하며 타인의 귀감이 된 노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유진섭 시장은 모범 노인으로 선정된 한명숙(칠보면), 최현권(감곡면), 라기용(정우면), 문영래(수성동) 어르신께 표창장을 전달하고 헌신과 노고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또,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 주위의 귀감이 된 박호준(북면), 이태환(소성면) 어르신에게 장한 어버이상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선정해 표창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형 푸드플랜 본격 가동

민·관 합동 위원회 출범식 100년 먹거리 개발 집중

부안군은 24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먹거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부안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농업인과 소비자, 전문가, 부안군의원, 공무원 등 3개 분과 20명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부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부안형 푸드플랜 경과보고, 푸드플랜 개요 설명, 통합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보고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어 먹거리 가치를 재인식하고 군민이 지향하는 먹거리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 역할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부안군은 24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협의체인 부안군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인 부안형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안의 미래 100년 안전한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을 비롯한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실현의 비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3월부터 노인목욕비 지원

70세이상 노인 중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정읍시가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정결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4일 목욕업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박종욱)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명이 대상이 된다.

단, 작은 목욕탕이 있는 태인면과 칠보면, 입안면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방문목욕 이용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결정되면 대상자에게는 1인 1회당 5천원, 연 10매(매 분기 3매, 3분기 1매)의 목욕권이 지급된다.

지급된 목욕권은 당해연도 말까지 협약 체결된 지역 내 11개 목욕탕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증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고창, 중점 경관 관리구역 지정·고시

고창읍성, 역사유적, 해안가, 하천변 등 6개 지역

고창군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등 역사유적과 해안가, 하천변 등에 대한 경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확정된 '고창군 경관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고창읍성지구 등 6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고창군 경관계획'은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 신축할 땐, 건축허가 전에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와 경관지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경관지문은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청 이종연 건설도시과장은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 훼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고창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지난 23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고리포어촌뉴딜 300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고창군-농어촌공사 '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맞손

3년 연속 선정, 2023년까지 사업비 100억원 투입

고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3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고리포어촌뉴딜 300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양정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고리포·자룡마을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촌뉴딜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을 비롯해 지역협의체 운영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시설물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균형발전정책과 제1 '어촌뉴딜300'은 전국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2019년 동호항, 2020년 죽도항과 광승항에 이어 올해 고리포마을이 어촌뉴딜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고리포 어촌뉴딜300'은 2023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어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촌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구시포해수욕장·상하농원-고리포 마을이 연계된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주민소득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어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중앙농협, 농작업 사업 확대 추진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순식)이 2021년도 농기계 은행 사업 확충으로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일괄 대행 사업을 합차게 시작하고 있다.

박진국 농기계 은행 사업 팀장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농작업 대행 요청이 매년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부안중앙농협은 농기계 선도 농협으로 방계 드론, 대형 트랙터, 콤바인 등 18종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신 기종을 추가 확보하고 전문 운영 인력을 충원하여 사업 확대, 농업인 소득 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피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사업 초기에는 논농사 중심의 소농, 고령농, 여성 농업인이 주로 이용 대상이었으나 발농사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용 농업인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국 농기계은행 선도농협 협의회장인 신순식 조합장은 농협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육묘에서 수확까지 농사의 모든 과정에서 농협이 일괄적인 농작업 대행을 해 줌으로써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사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